

페미니즘이라는 몽둥이

Hans-Jörg Ronsdorf · 2021년 4월 · 2026년 10월 개정

예상했던 대로 제 책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제 견해를 두고 이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강단에 선 여성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반기독교적인) 페미니즘에 장악당한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든 강단에서든 여성 할당제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페미니즘이다. 이상하게도 이를 위해 여성들 편을 들고 나서려는 이들 가운데에는 남자들도 적지 않다.”

엄격하게 보수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은 페미니즘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심지어 마귀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운동으로 여깁니다. 저도 여러 해 동안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너무 쉬운 길을 택합니다. **단순한 흑백 논리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페미니즘이 이론 모든 성과를 기꺼이(거의 기회주의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 없이 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위해 이론 것과 비슷합니다). 100년 전, 아니 200년 전에 사회에서 여성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남성과 달리 여성들이 얼마나 권리 없이 살았는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직접 찾아보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페미니즘 운동이 계기가 되어** 여성에게 유리하게 바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 운동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1878	영업법(Gewerbeordnung) 개정에서 처음으로 모성 보호 가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출산 후 3주 동안 무급 취업 금지가 적용됩니다.
1882	여성과 소녀를 위한 최초의 질병 및 장례 공제 조합 이 설립됩니다.
1891	제국의회에서 최초의 여성 노동자 보호법 이 제정됩니다. 여성의 갠내 노동이 금지되고, 여성의 11시간 노동제와 출산 후 4주간의 유급 휴식이 도입됩니다. 3월 12일 제국의회 회의에서 여성의 대학 입학이 거부됩니다.
1900	민법전(BGB) 이 시행됩니다. 혼인과 가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민법전은 가부장적 전통의 의미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확정합니다. 곧 혼인 생활과 가족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1918	11월 30일 여성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얻습니다. 이 권리는 1919년 8월 11일의 바이마르 헌법 제10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949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이 공포됩니다. 그 뒤로 새 헌법 제3조 제2항 제1문은 짧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1952	모성보호법 : 취업한 어머니의 보호에 관한 법률.
1957	민법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관한 법률(남녀동권법)이 무엇보다 가족법을 바꿉니다. 이 규정들은 1958년 7월 1일에 시행됩니다.

1961	가족법 개정법: 남편이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 아내의 법적 지위가 개선됩니다. 혼외자의 아버지가 지는 부양 의무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납니다(이전에는 만 16세까지).
1968	모성보호법 확대: 출산 전 보호 기간은 6주입니다. 출산 후 보호 기간은 8주로 늘어났고, 조산과 다태아 출산의 경우 이 기간이 12주로 연장됩니다.
1975	제5차 형법 개정법에 대한 보충 조치에 관한 법률: 법정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피임 문제에 관해 개별적인 의료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977	혼인법 및 가족법 개혁에 관한 제1차 법률: 동반자 원칙 – 혼인에서 법으로 정해진 역할 부담이 없어집니다.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뀝니다. 이혼 후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배우자는 부양 청구권을 얻습니다.
1980	연방 정부가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1979년 12월 18일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에 서명합니다.
1985	1979년 12월 18일의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1994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평등 계명 에 다음 내용이 추가됩니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촉진하며,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

출처(발췌): Zeittafel zur Geschichte der Gleichstellung(독일어), 빌레펠트 대학교

여기서 말한 변화들은 기독교의 성과가 아닙니다. 물론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그로써 그들의 남편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페미니즘은 먼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위해,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에 맞서 힘씁니다. 이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과 달리, 페미니즘은 언제나 여성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서로 대등한 눈높이에서 만나는 것도 뜻합니다.

19세기에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과 그 물결들, 그리고 여성 권리 운동은 분명 거룩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은 삶의 많은 일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고 남자들보다 권리를 적게 가진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가진 모든 인권을 누리지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운동이 낙태의 허용도 요구했고 대부분 이루어 냈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들이 불법과 불의에 맞서 저항했고 또 저항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역사의 흐름은 그냥 그대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하나의 운동이자 시대 현상으로서, 다른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여러 층위가 있으며 다면적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주제 영역이고, 저는 그 분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꺾아내리는 뜻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도 잘 알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람은 이 개념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도구로 삼습니다. 대개는 순진한 무지와 함께 말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저에게 페미니즘의 이론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동등한 권리를 다시 싸워서 얻어야 했다는 사실은 타락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창세기 3:16 참조). 남자는 여자를 작게 만들고 억압하고 이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많은 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깊이 새겨져 있으며, 말하자면 남성됨의 DNA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거의 유전되다시피 합니다. 가족과 문화가 생물학적 특징만이 아니라 깊이 새겨진 성향까지 물려준다는 것은 이제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은 많은 그리스도인 남성의 생각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자신의 위계적 시각을 성경 속에 읽어 넣습니다. 자신이 사는 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시대정신에 물든 채로 말입니다.**

복음은 이런 낡은 사고 구조를 깨뜨리고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시대에 이 낡고 최악된 가부장적 구조를 그냥 해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복음의 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 주고 말하자면 그 기초였던 당시의 사회 구조에 대한 공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말들은 마치 이 낡고 최악된 구조를 지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 관한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구조들은 안에서부터 허물어집니다. 창조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배경으로 자세히 읽는 사람은, **사도들이 최악된 위계의 끝을 뜻하는 길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은 조건 없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며, 피차 복종과 존중입니다. 그것이 가부장제의 끝이며, 일방적인 복종의 끝입니다.**

페미니즘은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반대쪽 극단으로 치우쳤습니다. 말에 오르다가 반대편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을 비난하던 바로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입니다. 잘못된 역할을 서로 바꾸기만 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이며, 세상에 치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이고, 다만 지배하는 성이 이제 여성이 될 뿐입니다.

창조주께서는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주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위계의 차이 없이 서로를 보완하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각 사람과 각 성에게는 상대에게는 덜 있는 특별한 특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며, 그래서 대등한 눈높이에서 서로 마주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이 원리는 결혼, 가정, 교회, 사회에 적용됩니다. 이것이 실천되고 추구되는 곳마다 새 창조의 숨결이 이 영역들을 스쳐 갑니다.

Hans-Jörg Ronsdorf, 줄츠베르크(Sulzberg), 2021년 4월 12일